

한·루마니아 경제인 오찬간담회 연설

존경하는 빌토르 바비욱 루마니아 상공회의소 회장,

그리고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양국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반갑게 맞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에 좋은 대화 나누셨습니까? 저는 바세스쿠 대통령, 그리고 네 명의 장관과 여러 가지, 특히 경제 문제에 관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만약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회담을 마치고 루마니아에 투자를 결정했을 것입니다.

어제 공항에서 오는 길에, 그리고 시내 곳곳에서 우리 광고물과 자동차를 보면서 한국에 대한 루마니아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에서도 루마니아는 매우 친숙한 나라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얼마 후 있을 루마니아 국립오페라단의 내한공연을 고대하고 있고, '라 체타테' 와인도 인기가 높습니다. 또한 한국 대학에서는 이미 1987년부터 루마니아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의 고향 부산과 콘스탄차 항 간에 직항로도 열렸습니다.

양국 경제인 여러분,

1990년 수교 이후 두 나라 간 교역은 꾸준히 늘어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도 한 단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루마니아의 대표 IT 기업인 '소프트윈' 제품이 한국에 첫선을 보였습니다. 두 나라 간 교역이 첨단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 분야는 더욱 활기칩니다. 1990년대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이제는 루마니아 경제의 한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발전설비 분야에서도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내년 EU 가입을 앞두고 있는 루마니아에 대한 우리 기업의 관심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번에 체결한 투자보장협정에 관한 의정서와 투자협력 양해각서도 여기에 한층 더 속도를 붙이게 될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양국 간 실질협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전에 바세스쿠 대통령과 여러 협정을 체결하고, '양국 간 우호협력과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도 이런 취지에서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두 나라는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발칸 지역의 에너지 공급원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비롯한 에너지 산업 현대화 프로젝트를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450여 개의 원전 중에서 이용률 5위까지가 모두 한국 원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은 한번 공사를 맡으면 기간과 비용, 품질 면에서 늘 계약서에 있는 것보다 좋은 성과를 내왔습니다. 얼마 전 한국 기업이 피테슈티 시 소재 페트롬 사의 정유시설을 당초 계약기간보다 2개월 앞당겨 준공시킨

것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현재 협의 중에 있는 체르나보다 3·4호기 원전사업 등이 좋은 결실을 맺어 이 같은 협력사례가 더 많이 나오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양국 기업인 여러분,

에너지 산업 외에도 우리는 서로 도울 수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바세스쿠 대통령께서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계신 정보통신과 석유화학, 자동차 분야 등에서 한국 기업은 아주 빠른 속도로 성공을 이루어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과 반세기 만에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를 16,000달러로 올려놓은 경험이고, 루마니아가 가고자 하는 성공의 길과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 기업인들은 시장경제를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가고 있는 루마니아의 좋은 친구가 될 것입니다.

특히 저는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루마니아는 동유럽 국가 가운데 IT 전문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유럽 최정상급의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전 국토에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IT 제조업 경쟁력과 전자정부 구축 등에서 가장 앞선 나라 중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나라의 강점이 서로 합해지면 모범적인 협력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수준 높은 과학기술과 학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개발 및 혁신협력에 관한 의정서 체결을 계기로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루마니아 경제인 여러분,

우리 기업과 손을 잡으십시오. 무에서 유를 창조한 신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한국 정부와 국민은 루마니아 인을 좋아합니다. 루마니아의 성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좋은 대화 나누고 좋은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큰 성공 거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